

누구나 마음속에 정원이 있다

김현정

정원을 가꾸고 있다.

가느다란 가지에 다닥다닥 밥풀처럼 붙은 조팝나무의 하얀 꽃을 필 두로 밥사발처럼 탐스러운 작약의 계절을 지나 여름 정원에는 수국이 한창이다. 손바닥만 한 잎사귀를 가득 달고 한껏 물을 올리던 수국은 가지 꼭대기마다 애기 머리만한 꽃송이를 엮었다. 꽃송이에 비해 턱없이 가늘어 보이는 가지는 초록색으로 올라온 꽃송이가 서서히 흰색으로 변하며 풍선처럼 부풀어 오르기 시작하면 잔바람에도 낭창낭창 허리를 꺾어 위태로워 보이기까지 하다. 별이 본격적이기 전에 한바탕 물을 주고 나면 살랑이는 바람에도 물기를 머금은 초록 내음이 실린다.

흙과 그늘이 있으면 콘크리트의 뜨거움에 지친 도시 고양이들이 모이기 마련이다. 몇 번이고 정원에서 마주치다 내가 위협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는지 그늘에 숨어 나를 관찰하던 몇 마리의 동네 고양이들을 위해 정원 한 편에 사료와 물을 준비했다. 조심성이 많은 고양이들은 내가 보고 있을 때에 나서서 먹지는 않지만, 한참 일에 열중하다 돌아보면 어느새 그릇이 비어 있곤 하다. 고양이보다 대담한건 새들이다. 비둘기와 참새들이 순서 없이 찾아왔다 놀라서 한꺼번에 날아간다. 자다 일어난 듯 부스스 산발한 머리깃을 하고 다홍색 연지를 공들여 양쪽 뺨에 찍은 직박구리는 깜찍한 외모와는 어울리지 않는 목소리로 크게 소리쳐 깜짝 놀라게 하는데 '꽤'또는'깹'으로 들리는 그 소리는 흡사 놀란 돼지의 괴성 같다. 두 마리가 짝 지어 매일 방문하는데 일정한 시간에 출근하듯 같은 장소를 방문하는 것으로 미루어보아 영리한 새인 듯하다. 고양이 사료를 노리고 출근하시는데 고양이와는 다르게 꽤나 대담하시다. 한 마리는 담장 위에 앉아 망을 보고 다른 한 마리는 고양이 밥그릇 위에 앉아 먹는다. 사료를 열 알쯤 먹고 나면 역할을 교대한

다. 밥을 먹다가도 망을 보던 새가 꽤액 하고 소리를 지르면 어김없이 푸드덕 날아간다. 손발이 척척 맞는 역할분담에 감탄하게 된다. 내가 의자에 앉아 있을 때면 발끝에서 겨우 한 뼘 떨어진 자리까지 접근하기도 한다. 이 대담함은 날개 있는 것들의 자신감에서 나오는 건가 싶어 부러워진다.

여름 정원은 생명력으로 가득해서 잡초는 뽑아도 뽑아도 매일 새롭게 돌아나고, 어제 스무 마리는 잡은 것 같은데도 어디에 숨어 있었는지 애벌레는 또 등장하여 정원을 초토화시킬 준비를 하고 있다. 약을 치면 간단히 해결되겠지만, 키우던 고양이들이 화단을 들락거리기도 하고 풀을 뜯어 먹기도 해서 못 썼다. 고양이들이 노환으로 한 마리씩 죽은 후에는 정원을 방문하는 동네 고양이들 때문에 쓰지 못하고 있다. 덕분에 화단을 한 삽 깊이만 파도 손가락 굵기의 지렁이들이 깜짝 등장을 하고, 종을 알 수도 없는 애벌레는 매일 새로운 파티를 벌인다.

등받이 의자를 정원에 두었다. 취미가 노동이 되기 전에 일손을 놓고 커피를 한 잔 마신다. 등을 기대고 하늘과 정원을 번갈아 바라본다. 하늘빛에 따라 초록도 그 빛깔을 달리한다. 날씨가 맑은 날에는 터질 듯 청청한 초록, 흐린 날에는 명도가 한 단계 빠진 묵직한 초록, 비 오는 날에는 물기를 머금어 생생한 초록, 어느 것이 우월하다 말 할 수 없이 모두 좋다. 정오를 넘겨 한여름의 더위가 집을 삼아올리기 전, 더위와 시원함이 적당히 섞인, 고요와 소요가 적당히 섞인, 무엇이든 적당한 이 시간을 적당히 만끽한다.

시행착오의 시간들이 있었다.

좋아하는 꽃과 나무를 들이기 위해 일산으로 파주로 대형 꽃시장, 나무시장을 돌아다녔다. 기왕 땅이 생겼으니 인터넷에서 흔히 보이는 누군가의 정원처럼 내가 좋아하는 것들로 한껏 채워 취향 가득한 정원을 만들고 싶었다. 물과 흙만 있으면 어디서든 무슨 나무든지 자라는 줄

알았던 시절이었다. 안타깝게도 집은 사방이 높은 건물로 둘러싸여 납작 주저앉은 형상이었다. 처음 이사 올 때는 남쪽으로 비슷한 주택이 이어져 뚫린 모양이었는데 어느새 그 곳에도 아파트가 들어차서 집은 우물 안에서 하늘을 바라보는 모양새가 되어버렸다. 별은 이제 오전부터 정오로 이어지는 시간에 잠깐 정원을 스치고 지나가게 되었다.

처음에는 키가 큰 나무들은 괜찮았다. 아기자기하게 예쁜 꽃을 보여주는 일년생 풀꽃들은 볼품없이 웃자라다가 결국 죽어나갔다. 그러나 다음 해부터 사과나무, 배나무, 모과나무가 병들었다. 봄에는 하얀 꽃으로 가을에는 보잘것없이 작지만 실한 열매로 가족에게 즐거움을 주던 나무들이었다. 아이들이 멋대로 자기 나무를 정해 이름을 붙인 나무들이었다. 나무에 생긴 적성병은 알아보니 향나무에서 옮겨오는 병으로 정작 향나무에는 병을 일으키지 않고 잠복하지만 봄비가 오면 퍼져나가 주변 사과나무와 배나무를 감염시키는 병이라고 했다. 봄에 약을 치면 된다지만, 아이들과 고양이가 마구잡이로 들락거리는 정원에 그럴 수 없어 한 두 해는 나뭇잎을 떼어내고 병든 가지를 제거하다 결국 포기하고 잘랐다. 운이 없었다. 주변에 새로 생긴 아파트와 빌라들은 조경을 위해 병충해가 없는 향나무를 주로 심고, 마침 우리 정원에는 다른 나무가 아닌 사과나무와 배나무가 있었으니 말이다.

여러 식물들이 정원을 거쳐갔다. 어느 가을에는 튤립 알뿌리를 여럿 심었다. 봄에 아름다운 튤립 정원이 되었지만 한 철 이었다. 어느 봄에는 화원에서 만난 봄꽃들에 홀려 정원 가득 심었는데, 한 해 살이었다. 일반적인 자연환경이라면 가을에 씨를 떨어뜨려 봄에 자연발아 하겠지만, 작은 정원에서는 꽃들보다 잡초가 강해 다음해에 다시 피어나는 법이 없었다. 그래도 길에서 본 밥풀 같은 흰 꽃이 생각나 집에 들인 조팝나무는 개미와 진딧물의 조합에도 불구하고 다행히 매년 착실하게 세를 늘려주었다. 마침내 만나 것이 작약과 수국이다. 작약과 수국은 땅과 물을 가리지 않고 적은 별에도 잘 자랐다. 작약은 여름 장마의 축

축함에 약해 잎에 곰팡이가 생기지만 꽃이 진 후 한 두 달을 잘 보내면 곰팡이가 생겼을 때 잎을 모조리 잘라내도 다음해에 어김없이 꽃대를 올린다. 수국은 일반수국, 산수국, 국내종과 외래종을 가릴 것 없이 모두 더위에도 추위에도 강하고 장마철 과습에도 강하다. 가히 3종 악조건에서의 최강자라 할 수 있다. 다만 수국은 뿌리를 깊고 넓게 뻗을 땅이 필요해 화분에서는 겨울을 나기 힘들었다. 산에서 자생하는 식물들은 별이 적은 정원에서도 살아남을 가능성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남부지방의 식물들이 인천에서도 겨울을 날 수 있지는 않다는 것을 드디어 깨달았다. 여러 시행착오를 차곡차곡 더해 정원은 지금의 모양새가 되었다. 여전히 인터넷에서 다른 이의 아름다운 정원을 탐하고, 유행하는 식물, 특이한 형태의 아름다운 식물을 볼 때면 나의 정원에도 들고 싶은 욕망이 끊임없지만, 다른 사람의 정원에서 잘 자란다고 나의 정원에서 안녕할 것이라는 보장은 없다는 것을 받아들이게 되었다.

정원을 아름답게 유지하기 위해서 나의 욕망보다 우선해야 할 것은 내 정원이 가진 조건이다. 토양은 어떤지, 물은 어떤지, 벌은 어느 시간에 얼마만큼 드는 지, 바람이 드나들 공간이 있는지 세심한 관찰로 살펴야 한다. 모두 파악했다 해도 시행착오를 피할 수는 없다. 각각의 식물이 원하는 조건과 맞는지, 조건을 맞춰 갈 수 있는지, 토양과 식물을 서로에게 적응시킬 수 있는지가 관건이다. 어찌되었건 시간과 노력이 드는 일이다. 누군가의 아름다운 정원은 그냥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었다. 누군가의 시간과 노력의 결정체이다.

‘누구나 마음속에 정원이 있다.’어느 지역 축제에 갔을 때, 작게 꾸며진 정원에서 발견한 글이다. 정원을 둘러싼 낮은 벽돌담에 그 정원을 꾸미는데 참여한 사람들의 이름과 함께 새겨진 글귀였다. 그 날, 그 문장은 내 마음속에도 새겨졌다. 나는 마음속에 정원을 품었다. 그것은 어느 좋은 날, 실체를 가지고 내 삶에 펼쳐졌다. 나는 나의 정원을 세

심하게 살피며 시간과 노력을 들여 정원을 가꾼다.

누구나 마음속에 정원이 있다. 어느 좋은 날, 그 곳에 꽃이 흐드러지게 피었을 때, 좋은 이를 초대할 수도 있을 것이다. 누구에게나 그런 날이 오기를 바라는 소망을 여름의 정원 한 가운데서 바람에 실어 본다.